

## GMPCS 단말기의 자유이동을 위한 이행절차 확정

조 성 태 / 정보통신부 통신위성과

지난 '98년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회의장에서는 제4차 GMPCS-MoU 서명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GMPCS의 전세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말기의 국가간 자유이동을 위한 협정 이행절차를 마련하는 회의로 주관청 대표, 시스템운영자, 서비스제공자, 단말기제조자 등 총74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정통부, KISDI, 한국통신에서 각 1명씩 참석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GMPCS는 위성을 통해 전세계를 하나의 통화권으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하여 소형의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성·팩스·데이터·페이징 등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글로벌한 이동통신서비스가 실현되려면 각국가 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1996년 10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을 GMPCS라 정의하고, GMPCS의 도입 및 개발을 주제로 제1회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각국이 전세계위성이동통신의 도입 및 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양해각서(GMPCS-MoU)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ITU는 1997년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각국의 정부대표, 시스템운영자, 서비스제공자, 단말기제조업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GMPCS-MoU 확정 및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GMPCS-MoU 협정(Arrangement)을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도 통신사업자 및 산업체에서 주요한 GMPCS 시스템에 자본 참여하여 국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어 그 동안 ITU 회의에 계속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제4차 GMPCS-MoU 서명자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시 구성된 Task Force에서

그 동안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마련된 협정 이행절차 및 GMPCS 단말기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사용을 위한 형식검정 표식(Marking), ITU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행정 소요비용에 대한 분담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 졌다.

먼저, GMPCS-MoU 협정의 이행절차(Implementation of The GMPCS-MoU Arrangements)가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ITU로부터 형식검정 마크가 부착되고 각국으로부터 사용이 승인된 GMPCS 단말기는 협정 참가국 어디에서나 국가간 번거로운 형식검정 문제가 없어져 GMPCS의 전 세계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며, 개별적인 무선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지므로 전세계적인 위성이동통신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행 중 휴대하는 단말기에 대한 관세경감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제4차 GMPCS-MoU 서명자회의에서 결정된 GMPCS 협정의 이행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일반적 이행(General implementation)

#### 1. ITU 사무총장의 통보서한

- ITU 사무총장은 GMPCS-MoU 협정 개발에 참여한 모든 주관청, 부문별회원, 서명자, 비서명자에게 다음 내용을 발송
  - 협정이행을 위한 절차를 기술하는 내용 및 협정이행 의사를 ITU에 통지하고 협정이행을 준비토록 하는 서한

#### 2. 이행의향서(Letter of intention to implement)

- 협정을 이행할 의향을 가진 주관청, 부문별회원, 시스템운영자, 서비스제공자, 단말기제조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ITU 사무총장에게 협정이행 의사를 통지

### ■ 특정시스템의 이행(System-specific implementation)

1. 시스템운영자는 다음 내용의 서한을 ITU 사무총장에게 발송

- 이행통지, 시스템의 설명 및 참고사항, 시스템과 연결이 승인된 단말기의 목록, ITU 사무총장의 특정시스템 이행서한 송부 요청, GMPCS 서비스제공자 및 지리적 커버리지 목록
2. 단말기제조자는 협정의 이행통지, 형식검정 정보를 ITU 사무총장에게 발송
  3. 형식검정 주관청은 단말기가 형식검정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 증빙자료(주관청명, 단말기제조자명, 시스템운영자명, 단말기 모델번호 또는 유사한 확인정보, 형식검정 날짜 및 첨부되는 표식이 있다면 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는 내용의 서한을 ITU 사무총장에게 발송
  4. ITU 사무총장은 단말기제조자에게 상기 단계의 모든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즉시 통보하면서 표식부착을 허용
  5. ITU 사무총장은 주관청에 특정 시스템의 이행서한을 송부
    - GMPCS 시스템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ITU 사무총장은 즉시 모든 주관청에 해당 특정 시스템의 자국내 운용승인 여부 질의
    - 상기 단계에 설명된 서한의 사본을 포함하는 서류 첨부
  6. 주관청은 협정에 따라 특정 시스템의 단말기의 자국내 반입 및 사용 여부, 시스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 시스템 단말기의 자국내 반입은 가능하나 사용은 불가 한다는 내용의 이행서한을 ITU 사무총장에게 송부

한편 회의기간 중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시리아, 인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GMPCS 단말기의 국경간 자유이동에 가장 중요한 단말기의 형식검정 표식(Marking)을 정하는 문제로 당초 Task Force는 당초 6가지 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번 회의의 의장인 탄자니아의 E.N Olekambainei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의 2가지 안으로 논의를 압축 시켰다.

- 제1안 : A declaration by the manufacturer
  - 표식의 형태는 “ITU-registered M/M/W”이며, 여기서 “M/M/W”은 언어와 형식에 구애 받지 않음
- 제2안 : ITU logo
  - ITU logo를 GMPCS-MoU mark로 사용하는 방안

이에 대하여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입장은 제2안의 경우 ITU가 하나의 특정한 기술(technology)에 불과할 수 있는 GMPCS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반대이유는 제2안이 ITU의 규제기능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ITU의 역할 팽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리아, 인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경우 제2안을 선택함으로써 ITU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회의 결과 2개안을 절충하여 “GMPCS MoU, ITU, Registry”의 3단어를 순서대로 영어만으로 사용하기로 표식을 확정하였으며, 표식의 구체적 형태는 ITU 사무총장이 서명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ITU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주관청을 제외한 모든 서명자와 향후 서명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비용분담의 원론만을 결정하였으며 행정부가 GMPCS의 시스템운용자, 서비스제공자, 단말기 제조자인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GMPCS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각국으로부터 사용이 승인되고 ITU로부터 형식검정을 받은 마크

가 부착된 단말기는 협정 참가국 어디에서나 형식검정이 사실상 면제되고 개별적인 무선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여행 중 휴대하는 GMPCS 단말기에 대한 관세경감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한편, ITU는 '98년 5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GMPCS 협정을 승인할 계획이며 6월부터 이행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이리듬 시스템이 '98년 9월 2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글로벌스타 시스템이 '99년 3월, ICO 시스템이 2000년 10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하여 느낀 점은 주요한 GMPCS시스템을 제안한 미국의 21세기 위성이동통신시장 선점에 대하여 ICO 시스템을 제안한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가능한 타격을 늦추려는 모습을 볼 때 선진국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규제나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면 항상 느끼는 생각이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해당분야에 오랫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회의의 전체적인 진행배경, 타국의 전략 등을 사전에 간파하고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언어문제 및 매 회의마다 참석자가 빈번하게 바뀌는 점 등으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는 면이 많은 아쉬움으로 느껴졌으며, 이제 우리 나라도 IMF시대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육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느껴졌다. 